

3저 시대의 기업전략

이 영 세

산업연구원 (KIET)
특수분석실장 · 經博

■ 目 次 ■

- I. 머리말
- II. 3저의 背景
- III. 3저의 展望
- IV. 3저의 效果
- V. 企業의 対応戰略
- VI. 맺음말

I. 머리말

작년 연말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축복의 세레나 받은 듯 외부로부터 좋은 소식이 잇달아 들려왔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油價下落이며, 두번째는 달러가치의 弱勢反轉, 그리고 國際金利의 下落이 그것이다. 이 3가지 하락현상을 일컬어 소위 3低라고 하며, 우리나라 경제의 才2跳躍을 위한 다시없는 好機로 여겨 모두가 들떠있다.

기름 한방울 나지않는 나라에 現物市場油價가 약1/3로 떨어지고, 연간 100억달러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貨幣價值가 일본의 엔화에 대해 40% 가까이 떨어진 것이라든지 작년 3월이래 國際金利가 續落하는 현상은 세계 제4위 外債國인 우리나라로서는 아무리 過小評價하더라도 두번 다시 맞기 힘든 與件의 好轉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每事에는 동전의 兩面的 性格이 있고 好事에는 魔가 깃들기 마련인지라 이러한 호기가 늘 좋게만 작용할 수 없음도 알아야 한다. 특히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축복은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不安定한 것이다. 또한 3低라는 國際經濟環境變化의 惠澤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台灣을 비롯한 주요경쟁국도 共有하는 혜택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3가지 好材를 막연히 즐겨워하기 이전에 충분히 우리의 長期的 國益에 도움이 되도록 좀더 냉정한 자세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76년 중동건설경기붐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충분히 국력배양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무리한 증복투자, 사치·낭비풍조의 만연, 부동산 투기 등으로 好機를 流失해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

다. 그 반면에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은 각각 착실한 저축과 첨단기술산업에의 투자로 오늘날에는 선진국을 능가하는 경쟁력과 엄청난 국제수지흑자를 누리고 있음은 우리와 대조적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3低現象의 背景을 略述하고, 그 展望과 效果를 論한 후 기업측면에서의 対応戰略을 설명하고자 한다.

II. 3低의 背景

현재의 새로운 상황은 항상 過去狀況의 문제점 노출로부터 발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油價下落, 달러價値下落, 國際金利下落으로 특징되는 현재의 3低環景을 있게 한 原因과 背景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3變數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수준에 달했던 '80년대 전반의 3高時代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油價의 흐름을 보면, 제 2차 中東戰이 계기가 된 '73년 제 1차 오일쇼크로 인해 油價는 배럴당 3.39달러에서 11.29달러로 약 3배 증가했던 것이, '78년 이란回敎革命 이후에는 사우디產의 32달러에서 리비아產의 41달러에 이르기까지 10배이상 急騰하였다. 天井不知로 油價가 오르게 된 원인으로는 이란의 石油生産減少와 선진국들의 경쟁적인 原油備蓄努力이라는 需給上의 不均衡外에 '70년대들어 강력해진 OPEC 카르텔의 談合力등을 들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80년대 전반에 배럴당 30달러에 이르는 高油價時代에 살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國際金利와 換率은 美國의 경제정책과 깊은 관계가 있다. 즉, 레이건 행정부의 등장이후 金融緊縮基調와 租稅減免政策이 계속되었는데 이로써 미국은 엄청난 財政赤字를 기록하게 된다. '85년에 2,123억달러까지 급

증한 재정적자의 보전을 위해 미국밖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자본유입이 필요했던 미국의 상황과 高油價—世界景氣沈滯로 중남미를 비롯한 外債開途國의 새로운 外資導入 需要增大로 國際高金利現象이 발생하였었다.

高金利는 다시 달러의 強勢化 原因이 되었으며 달러貨의 강세는 이밖에도 美蘇간의 새로운 냉전분위기로 투자자들의 安全通貨 選好, 달러의 가치는 곧 미국위신의 척도라고 인식했던 레이건 행정부의 조치로 인해 비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었다. 이러한 달러강세는 다시 미국에 엄청난 무역적자를 안겨주어 金利引上의 相乘作用을 일으켰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는 '80년대 전반을 油價, 金利, 換率의 3變數가 모두 높은 3高時代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작년 9월 G5(선진 5개국 재무장관 회담)가 달러의 가치를 협조인하하기로 결정한 이후, 그해 12월 유가가 急落하기 시작했고, 올 들어서는 주요국의 公定割引率이 2차례에 걸쳐 인하되면서 世界經濟環境은 3高에서 3低로 反轉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러한 與件變化는 어떤 背景下에서 이루어졌는가? 過程과 背景을 아는 것은 3低現象의 安定性 여부를 전망함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사전작업이다.

먼저 우리 경제에 가장 得이 되는 油價下落의 背景으로는 제 1차 오일쇼크 이후 石油多消費國들의 에너지節約의 기술에의 집중투자, 대체에너지 개발의 노력, 새로운 油田개발노력이 제 2차 오일쇼크를 겪는 중에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세계석유시장이 공급과잉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유전개발 중에는 75년 영국이 북해 대륙봉에서 발굴한 油田이 특기할 만한 것으로 현재 日產 270만배럴로 세계 5위의 產油國이 되면서

OPEC의 市場占有率을 크게 잠식, OPEC의 油價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이 정도의 需給不均衡要因은 '86년중 油價를 '85년 수준에서 2~3 달러 하락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고작이었다. 작년 12월, WEFA와 OECD가 86년중 유가는 각각 배럴당 26.45 달러, 25.92달러로 전망한 것도 이를 뒷바침한다. 그럼에도 작년 12월에 세계석유시세를 선도 하는 영국 북해산 Brent油, 미국 서부 텍사스산 中質油(WTI)의 現先物價格이 배럴당 30~31달러에서 금년 4월 10달러이하까지 폭락한 이후 현재 14달러 내외의 등락을 보이기가 지 60%나 하락 하였다.

유가폭락의 원인은 석유 성수기인 지난 겨울 유럽에 異常暖先現象이 발생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直接的인 것은 지난 12월初의 OPEC定期總會에서 石油減産에 합의하지 못하고 非OPEC산유국에 대해 市場占有率을 固守하기로 선언한데서 찾을 수 있다.

사실 OPEC시장점유율은 1, 2차 오일쇼크 당시인 '74년 52.9%, '79년 47.8%에서 현재는 30.2%로 크게 떨어져 종전의 효과적인 市場支配力을 상실하였다. 더우기 供給過剩을 줄이고자 한 生産割當量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油價安定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우디도 하루 200만 배럴까지 감산했던 공급량을 다시 400만 배럴로 증산하여 이 總會 이후 원유시장의 초과공급상태가 더욱 가중되었으며, 이에 따라 油價暴落現象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달러가치는 레이건 집권 이후 약 5년동안 강세를 보이다가 약 1년전부터 완만한 약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작년 9월 G5가 외환시장에 공동개입하기로 결정을 한 이후 續落을 거듭했으며, Morgan Guaranty Trust Co.의 実效換率指數에 의하면 달러화는 '85년 3월이래

금년 4월말까지 약 25% 평가절하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일본 엔화의 가치는 작년 9월말 달러당 220.75엔에서 금년엔 170엔線以下까지 상승하여 戰後 최고수준을 기록한 바있으며 금년 5월말(172.15엔/\$)에는 작년말(200.05엔/\$)對比 16.2%상승하였다. 서독 마르크화와 영국 파운드화도 각각 前年末 2.4410DM/\$, 1.4493\$/£에서 금년 5월말에는 2.3070DM/\$, 1.4860\$/£로 5.5%, 2.5% 평가절상되었다.

이와같이 달러화가 작년 3월이래 완만하나 마 약세로 反轉된 것은 前述한 바와같이 강력한 미국을 표방한 레이건 행정부가 달러화의 강세를 건설한 미국경제의 지표로 여겨 인위적으로 강세를 유도, 막대한 무역적자를 발생시킨 결과 미국경제의 신뢰도가 떨어졌기때문이다.

미국 무역적자는 '81~'85기간중 연평균 49%증가하여 '85년에는 1,384억 달러에 이르면서 미국을 純債務國으로 轉落시켰다. 이것은 高金利로 인한 투자위축, 생산성증가를 둔화, 그리고 이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와, 달러강세로 인한 수입격증과 수출가격경쟁력의 약화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면 3高時代에 미국이 얻은 인플레이션정이라는 것도 격증하는 수입에 의한 수입물가하락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막대한 무역적자를 대가로 지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재정적자와 더불어 더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무역적자를 안게 된 미국은 먼저 의회에서부터 금년도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종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對美 黑字國에 대한 전면적인 시장개방압력을 가중시켰고, 미 행정부도 결국 종전의 입장에서 현실주의로 선회하면서 적극적인 달러화 약세 유도 정책으로 무역적자를 시정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85년 465억 달러의 對美貿易黑字를 기록, 미국의 최대 무역분쟁 대상국이었던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외환시장 공동개입에 인한 달러화 약세 유도조치를 작년 9월 발표함으로써 엔高, 달러약세의 길에 접어든 것이다.

한편, 국제금리는 지난해 대체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금년 3월과 4월에 걸친 선진국들의 정책금리인하조치로 금리하락추세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국제금리를 주도하는 미국 금리는 통화긴축과 무역적자로 프라임레이트가 '80년에는 21.75%까지 상승하였으나 미국경기하강과 더불어 전반적으로는 하락추세를 보여 금년 초에는 9.5%에 이르렀었다. 그러나 두차례에 걸친 선진들의 협조인하로 공정할인율은 연초 7.5%에서 현재 6.5%로 떨어졌고 프라임레이트도 8.5%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면 무엇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金利引下를 가능하게 했으며, 종전에는 단지 一國의 政策變數로 간주되던 금리인하의 폭과 시기결정이 선진국들의 共同步調下에 이루어지게 했는가?

금리인하를 가능케 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먼저 유가하락에 힘입은 각국의 物價安定基調의 定着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금융긴축완화의 여지를 가질 수 있는데다 세계경제의 급속한 회복의 필요성과 전체 외채액이 9,700억 달러에 연간 利子支拂額만도 300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국들의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성, 특히 멕시코 등의 産油開途國에 의해 국제금융시장질서가 와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금리인하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들의 공동금리인하를 가능하게 한 것은 세계경제의 상호의존도 심화에 따라서 一國經濟의 침체는 다른 나라의 경제에 파급된다는 공동인식하에 세계적인 경기부진

을 막아야 한다는 이해의 일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일본과 서독은 각각 자국의 화폐 가치가 달러화에 대해 크게 評價切上된 결과 수출이 부진하게 되면 國內景氣浮揚과 그에 따른 內需增大로 상쇄해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간의 공동 금리인하에 협조했다고 할 수 있다.

Ⅲ. 3低의 展望

3低가 성숙하게 된 이면을 보면, 低油價는 무엇보다 需給上의 不均衡에 의한 '經濟理論的인' 經濟現象인데 反해, 달러강세, 低金利體制는 共同介入, 協調引下라는 文句에서 알 수 있듯이 '改治經濟的인' 經濟現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3低環境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과거 3高現象이 4~5년간 지속되었듯이 현재의 3低現象도 一時的으로는 小幅의 騰落이 있을지라도 향후 수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유가는 OPEC과 非OPEC 산유국간에 시장점유 쟁탈전을 계속한다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나 그 반면에 OPEC의 감산에 의한 유가회복에 노력하고 非OPEC 산유국이 이에 동조한다면 단기적으로도 유가가 再反騰할 여지도 있다. 실제로 非OPEC중 멕시코, 이집트, 말레이시아, 오만, 앙골라 등 5개국은 OPEC의 생산감축에 합의한다면 이에 동조할 것이라는 의사를 보였고, 노르웨이의 파업으로 한때 유가는 다시 오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5대 산유국인 영국은 경제 전체에서 석유산업의 비중이 낮고 저유가로 인한 경제과급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하에 현재의 유가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이고, 현재의 유가폭락은 사우디의 증산에 기인한다는 OPEC회원국의 비난에도 전체 회원국의 협조가 없는 사우디만의 감산은 어려우며, 산유국들의 경제

사정을 감안해 보면 OPEC와 非OPEC의 공동 감소에 의한 유가 재반등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저유가가 계속될 경우 限界生産費用이 높은 유전의 經濟性 상실, OPEC의 대량투매에 따른 販路不足에 기인한 非OPEC의 공급감소, 신규 유전탐사에의 투자기피, 에너지多消費型 산업의 발전, 세계경기회복에 따른 석유수요증대가 예상되므로 유가는 再反騰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유가폭락으로 長期的인 에너지 安定需給에 차질이 생기고, 産油外債開途國의 외채위기 재연에 대한 우려로 미국을 중심으로한 油價安定化 노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과 원유수급상황을 감안해 보면, 油價는 현수준보다 조금 높지만 안정적인 선에서 장기적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의 유가는 배럴당 18달러로 전망된다.

DRI가 금년 3월(Review of the U. S. Economy)에 금년중의 유가를 18.29달러로 전망한 것이나 최근 작성된 美 행정부의 조사 보고서에서 14~18달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를 뒷받침한다.

다음 환율을 보면, 달러약세화 정책의 궁극 목표인 美貿易赤字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음에 달러화의 추가 약세는 불가피하다는 예상과 정치·군사면에서의 국제긴장고조와 금년 하반기이후 미국경기가 회복할 경우 재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예상이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달러가 약세로 접어든 지난해에 미국 무역적자폭이 1,384억 달러에 달했을 뿐더러 금년 1~4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28.2% 증가한 555.4억 달러에 달한 반면, 일본은 엔고속에서도 금년 1~4월 중 228.9억 달러의 흑자를 내는 등, 미국을 제외한 여타 선진국들

은 통화강세에도 불구하고 유가하락에 힘입어 계속 무역흑자가 확대되고 있어 달러화의 추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따라서 미 무역적자가 단기간에 개선될 수는 없으므로 달러약세, 엔고현상은 장기에 걸쳐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이 최근 1년간 급변하는데다, 시장 메카니즘(mechanism)이 아닌방법에 의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기는 하지만, 환율조정의 배경과 정책 담당자들의 발언을 감안해보면 올해 엔화의 對美貨 환율은 160~180엔 안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미 행정부 조사 보고서에서도 달러가 160엔이하로 떨어지서는 오히려 일본경제의 불황을 초래함으로써 미국의 대일수출 감소, 미 무역수지의 개선 저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160~180엔을 적정 환율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국제금리는 향후 수년간은 유가의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이 기대되어 주요국이 통화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것과, 경기부양을 위한 선진국간의 정책협조 지속, 미국의 대외채무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금리수준은 금년중 약 1%정도 더 하락하여 미국의 프라임레이트는 7.4% 수준, 유로달러금리는 약 6%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도 인플레이 진정 지속과 미국의 조세개혁안등으로 연말경의 경기회복, 유가반등등으로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금리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인플레이 진정이 주로 유가 하락에 기인하는만큼 장기적으로 유가가 재상승하거나 인플레이를 용인하는 경제정책이 시행될 경우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V. 3低의 効果

油價, 金利, 달러貨는 작년 말의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원유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총외채는 467억달러, 貿易依存度가 73%에 달하는 우리 경제에 이 3가지 가격변수가 미치는 힘은 대단하다. 따라서 이들 變數의 하락, 즉 3低로 우리 경제는 더할 나위없는 好機를 맞았다 해도 조금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지난 1/4분기의 결과를 보아도, 수입은 前年 同期에 비해 15.9%(수리선박제외) 증가한 반면, 수출은 21.3% 증가하였고, 국민 총생산은 9.7% 증가하여 3低현상에 의해 高成長率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심화되는 3低현상의 장기화 전망에 따라 금년도 경제성장율은 7%에서 8%로 상향조정되었고, 경상수지도 당초의 균형목표에서 사상 처음의 흑자전망(5억달러)으로 상향조정되었다.

긍정적인 효과만을 본다면, 먼저 유가하락으로 '85년 평균 도입단가가 배럴당 26.7달러에서 올해는 18달러로 전망되고, 금년도 도입물량은 약 2억배럴이므로 당장 16억달러의 원유수입대금 절감효과를 보게되며, 또 국제금리 2%하락으로 인해 총외채중 65%가 변동금리부 조건인 우리나라는 6억달러의 외채이자 부담 경감혜택을 입게된다. 偶然所得으로 얻게되는 22억달러는 작년도 경상수지가 9억달러 적자였음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닌데, 여기에 換率變數와 波及效果까지 고려한다면 3低의 効果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즉, 달러약세, 엔화강세로 섬유, 가전제품등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들은 제3국에서 가격 경쟁력면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되어 수출이 더욱 늘어날 뿐더러, 저유가, 저금리로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우리의 수출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3저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好材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惡材로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3低의 부정적인 효과중 첫째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엔화상승으로 인한 대일무역적자 심화현상이다. 이미 1/4분기중 대일무역적자액은 10억 9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의 63.2%증가하였는데 엔고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9.5%늘어난 반면 수입이 31.2%나 증가한 탓이다. 무역 상대국의 통화 가치가 강세임에도 단기적으로는 환율변동이 무역수지에 逆의 방향으로 효과를 미친다는 J-curve 效果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으나 그보다는 기계류부품 총수입액중 대일수입액이 61%에 달하는 우리 산업 구조의 대일 편향적인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조립·가공형의 수출패턴에서 전·후방으로 긴밀한 산업 연관관계를 갖는 경제구조로 이행되지 않는한 엔화가치의 상승은 일본의 비싸진 상품을 들여와 국내물가인상요인이 되는 동시에 수출의 외화가득을 떨어뜨리게 되어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게한다. 오히려 전반적인 무역수지는 크게 개선되지 않는 반면 엔고로 우리 상품수출이 집중되는 미국과 무역마찰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우리의 총외채중 12.5%인 12.5억달러가 엔화표시차관이므로 엔화가 전년말대비 약 15% 강세를 보이면 약 1.9억달러의 換差損을 입게 되어서 전체 외채가 증가하는 부담이 있다.

두번째로 지적해야 하는 부작용은 유가급락으로 인해 현재 200억달러 규모의 공사를 진

행중에 있는 해외건설업이 받는 타격이다. 저유가로 중동 산유국의 경제가 악화되어 향후의 수주전망이 불투명할 뿐더러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대금의 회수가가능성도 불확실한 해외건설업은 이미 공사를 마치고도 받지 못하는 미수금이 21억달러에 달해 한층 부실해질 소지가 있다. 공사대전을 원유로 받을 경우에도 OPEC 公示價와 現物價의 격차가 심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또한 저유가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게하여 국내 산업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으며, 에너지 절약적인 기술투자의 위축을 초래해 향후 유가가 재반등하면 제 2 차 오일쇼크 이후와 같은 몸살을 겪어야 하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3 저의 효과를 감소 또는 상쇄시키는 세번째 요인으로는 투기, 사치성 소비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미 연초에 증권시장에 과열현상이 발생했던 것이나 올해 정부의 국제수지 흑자전망이 내수용 수입증가율을 4.9%로 가정한 바탕위에 세워진 것인데 1/4분기 실적은 14.5%를 기록했던 예는 3 저의 부정적인 효과인 소비풍조의 만연이 단지 우려만이 아니라 실제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밖에도 국제금리의 인하가 외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국내금리가 높아지면 새로운 차관도입이 유발되고, 기업도 자금조달비용면에서 유리한 외화조달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마이너스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비율이 경쟁국의 그것보다 높고 대출금리도 일본의 5.5%, 대만의 6%, 홍콩의 7%에 비해 높은 10%수준임을 감안하면 자금코스트면에서 국제경쟁력은 劣勢에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점 정부나 기업의 효율적인 대응자세가 요구된다.

3 저의 효과를 요약해보면, 유가, 금리의 하

락으로 우리 경제는 1 차적으로 약 22억달러의 偶然所得을 얻을 뿐 아니라 換率變動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우위로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그 파급효과의 경로를 따라가 보면 負의 效果를 미치는 측면도 적지 않아 3 저가 好材냐, 惡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3 저를 어떻게 활용하고 대처해 나가는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3저라는 與件變化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만, 홍콩등 주요 경쟁국들에게도 미치는 현상이고, 어떤 면에서 경쟁국들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 直接效果는 아니더라도 波及效果面에선 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V. 企業의 対応戰略

지금까지 3低의 背景, 展望 및 效果를 살펴 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外部的 與件變化에 따른 企業의 対応戰略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 좋은 방향으로든지 나쁜 방향으로든지 외부여건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은 企業의 側面으로 보서는 不確實性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확실성의 증가는 곧 위험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은 이러한 위험발생을 사전적으로 고려해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3저로 인하여 기업의 판매가 늘고 原價가 감소하는 것은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기업에서 체험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는 후속적인 기업결정, 예시하면 生産能力의 擴張, 生産要素間 代替, 流通網擴張을 위한 新投資, 適正在庫量의 재조정 등에 있어서 신중하고 보수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고 또한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기에 산업여건 변동에 대한

情報의 정확도 내지 그 量에 따라 不確實性에 따른 危險은 비례하여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保險金 (Insurance Cost)을 덜 지불해도 되는 것이다.

만약 현재의 3 저현상이 단지 1년이내의 단기적 현상이라고 보는 기업과 적어도 3~4년은 지속될 것이라는 情報를 갖는 기업의 투자 행위를 비교하여 보면 우리는 후자의 경우가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과감한 투자를 하게되고, 따라서 더 높은 성장과 기업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은 여건변화가 심한 이런 때일수록 情報의 生産財로서의 인식을 높여 정보수집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尅日 輸出戰略面이다. 엔화의 원화 교환비율은 작년 3월 100엔당 339.45원에서 5월말 현재 509.34원으로 1.5배가량 증가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대일 수출상품의 일본시장에서의 가격은 종전보다 50%나 저렴하게 됨을 의미하고, 일본수입상품의 우리나라 시장가격은 반대로 50% 상승함을 뜻한다.

그러나 작년 우리나라의 尅日 輸出額은 45.4억달러, 輸入額은 75.6억달러로 30.2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도 벌써 16.2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는 주로 日産 資本財의 수입때문에 생긴 결과이며 자본재 수입은 우리의 산업구조상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엔화가 고평가된 현 시점이야말로 자본재의 수입대체를 할 수 있는 適期라 할 수 있으므로 자본재 생산업체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일본 자본재 생산업체가 원가절감과 경영 합리화를 통해 가격인하의 효과를 내기전에 시장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일 수출품은 그만큼 엔화표시 수출가격이 싸지게 됨으로써 일본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하겠다. 그러나 일본시장은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품질검사제도가 까다로우며 외국제품을 선포하지 않는 소비자의 소비형태로 말미암아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얼마만큼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기업의 자세와 각오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기업체는 가장 유능한 사원을 일본에 주재시켜 일본시장에 파고들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이 점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總輸入額은 1,305억 달러로써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의 가장 큰 Frontier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로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가 기업에서나 가정에서나 만연할 수 있는 개연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제조업의 총원가중 간접적인 파급효과까지 포함한 석유제품의 총투입비중은 16.6%로써 일본, 대만 등의 경쟁국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에너지 단가의 하락은 경쟁국에도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므로 유가인하분을 국내유가에 경쟁국과 똑같이 반영한다고 해도 국내기업에 낭비적 요소가 있는 한 국제경쟁력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정부에서는 국제경제환경의 호전을 경제팽창보다는 산업구조 조정등 경제의 質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하에 국제유가 하락분의 일부분을 石油安定基金으로 흡수하고 있다. 그 결과 4 차례에 걸쳐 유가를 인하한 대만에 비해 산업용 벵커C유 가격은 6%, 산업용 전력요금은 15%가 우리나라가 높기 때문에 정부정책을 고정된 外出變數로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에너지 단가면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요인을 계속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네째, 국제금리하락은 외채많은 우리나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지만 국내금리가 국제금리보다 높은 상황에서 內資보다 外資를 선호하는 기업자금운용형태를 외채상환에 대한 문제의식을 흐리게 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면은 앞서 살펴본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국내금리가 내리게 되어도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재무구조개선의 노력을 동원시키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저축율만 낮추는 不作用도 배제할 수 없음을 언급해두고자 한다.

요약하면, 현재의 유가, 금리, 환율변동이 우리 경제에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3저현상 그 자체만으로는 好材도 惡材도 아닌 단지 機會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이 기회를 전과 같이 방만한 경영으로 놓치느냐, 아니면 이 기회를 재무구조의 개선, 수입 원자재의 國產代替, 일본시장에의 진출·확대기회로 삼아 얼마만큼 成長潛在力을 축적할 수 있느냐에 관건이 있다고 하겠다.

VI. 맺 음 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경제에 다시 없는 호기로 알려진 3저의 배경과 전망, 그리고 그를 활용하기 위한 기업측면에서의 대응전략을 간단하나마 살펴보았다. 그러나 3저의 效를 極大化하자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공통된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소비성향이 89%로 일본의 83%, 대만의 78%보다 높다는 점과, 우리의 많은 외채가 소비와 저축의 Gap에서 비롯되었음에도 아직 저축율이 낮다는 점을 인식하여 호경기에 따르는 소비풍조의 만연을 경계하여야 한다. 또한 여건의 호전에 따라 수출이 잘 되어도 그만큼 수입이 증가하면 국제수지의 개선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輸

入自由化率의 제고에 따라 사치성 소비재를 포함한 內需用 輸入消費材에 대한 선호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국제수지 개선에 따른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요인과, 인화상승에도 대일수입의 구조적 문제점에 따른 수입원자재 가격상승, 부실기업정리를 위한 韓銀特融 등으로 국제유가하락에 의한 물가안정기반이 흔들리고 物價上昇압력을 받게 되면 이러한 소비풍조는 다시 再點火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적절한 不胎化政策(Sterilization Policy)으로 흡수하여 인플레이 재발을 막음으로써 불건전한 부동산 투기 및 소비풍조의 만연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환율변동에 따라 原資材의 수입단가가 급등하고 있음을 증시하여 국내산업의 부품개발에 실제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하며, 유가하락으로 조성된 石油安定基金의 증액분을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선별 투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70년대 중반, 중동 건설경기에 따른 호경기를 일본, 대만의 경쟁국과는 달리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流失해버린 뼈아픈 경험을 하였다. 유가, 금리, 환율변동이 우리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이번 기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 외에도 유가조정, 금리운영면에서 失機하지 않는 정부정책이 필요하고, 또 기업은 부품 및 기술개발에 힘써 대일 의존적 경제구조를 탈피하려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소비자도 불건전한 소비형태를 지양해야 한다. 즉, 모든 경제주체들이 3저의 逆效를 極小化하여 이번 기회를 국민경제 再跳躍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